



보도

2026.3.5.(목) 14:00

배포

2026.3.5.(목)

담당부서	민생침해대응총괄국 민생침해대응총괄팀	책임자	국 장	임정환	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김도희	(02-3145-8272)
	금융사기대응단 금융사기대응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정만	(02-3145-8150)
		담당자	팀 장	정윤미	(02-3145-8130)
	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	책임자	국 장	오정근	(02-3145-8730)
		담당자	팀 장	김철영	(02-3145-8888)
	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	책임자	국 장	송경용	(02-3145-8410)
		담당자	팀 장	이철진	(02-3145-8412)
	자금세탁방지실 자금세탁방지기획팀	책임자	국 장	김지웅	(02-3145-7500)
		담당자	팀 장	박병일	(02-3145-7502)
	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	책임자	국 장	문재희	(02-3145-5970)
		담당자	팀 장	허수정	(02-3145-5972)

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

1

업무설명회 개요

□ 금융감독원은 '26.3.5.(목) 금융회사 임직원, 각 금융협회 관계자 등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」를 개최하였음

- 세션1에서는 김형원 부원장보의 인사말씀에 이어 민생금융에서의 금융회사의 책임 및 역할에 관한 외부전문가 특강*을 실시하였고,

* 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연구위원, 「민생금융에서의 금융회사 책임 및 역할 강화」

-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26년 민생금융 부문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질의·응답이 이루어졌음

- 세션2(라운드 테이블)에서는 금융회사와 금감원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하여 시의성 있는 주제*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,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였음

* 소그룹별 주제 : ①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, ②보험사기 혐의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, ③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주요 검사 사례

- 김형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
- 금융범죄는 딥페이크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고 주가 상승세를 틈타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시화된 위기가 되었으며,
 - 이에 금감원은 올해를 ‘잔인한 금융 혁파’의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금융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힘
- 이어서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고,
-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좌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등 금융범죄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
- 또한, 금융·통신·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정보를 분석·공유하는 AI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(ASAP*)을 적극 활용하고,
- * ASAP : AI-based anti-phishing Sharing & Analysis Platform
-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새로워지는 온라인 불법광고를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힘
- 아울러, 유튜브, SNS 등 파급력이 높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히 전파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,
- 금융회사에서도 영업점 매체나 모바일 앱 등 보유하신 온·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금융범죄 예방 교육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당부

3

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설명회·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민생금융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,
-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

☞ [붙임] 2026년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부문 주요 업무 추진계획

< 2026년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요 >

- ☑ 일 시 : '26.3.5.(목), 14:00~16:00
- ☑ 장 소 :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등
- ☑ 참석자 :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임직원 등 약 260명
- ☑ 프로그램

시 간		내 용	비 고
Pre세션	14:00 ~ 14:30	스탠딩 티타임 * 금감원-참석자간 소통의 시간	-
세션 I	14:30 ~ 14:35	인사말씀	민생금융 부원장보
	14:35 ~ 14:55	외부 전문가 발표	한국금융연구원 이규복 선임연구위원
	14:55 ~ 15:10	2026년 민생금융 부문 주요 업무계획	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
	15:10 ~ 15:20	질의·응답	각 부서장
휴식	15:20 ~ 15:30	휴식 및 이동	
세션Ⅱ	15:30 ~ 16:00	라운드 테이블 * 주제별 소그룹 논의	[비공개]
		①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	금융사기대응단
		② 보험사기 혐의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	보험사기대응단
		③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주요 검사 사례	서민금융보호국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① 불법사금융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 마련

- AI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용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대포킬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사전예방 조치를 강화
-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기능 확대,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 발급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이행

②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

-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(‘25.8월) 이행과제*를 추진하고, 이상거래 탐지시스템(FDS)에 신종사기 범죄 유형을 반영하여 적극 대응
- * 금융·통신·수사부문의 범죄 의심정보를 플랫폼(ASAP)으로 공유, 가상자산 계정에도 지급정지 및 환급 적용, 금융사 무과실책임 법제화 및 피해예방 역량 강화 등
- 공항,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, 홍보 파급력이 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강화

③ 신종·악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

- 국민보험(실손, 자동차) 누수 방지를 위한 기획·상시 조사를 강화하고, 다양한 보험사기에 대한 채증 강화를 위해 자료요청권 범위 확대를 추진
-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인상된 자동차 할증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하고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

④ 대부이용자 등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감독 강화

- 장기 연체 채무자 등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*하는 한편, 반복적 채권매각, 매입채권 추심행위 적정성 등을 점검

* 대부업권 「소멸시효관리 모범규준」 추진,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행위 중점 점검 등

-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고객정보 유출여부, 불법사금융 연계 등을 점검하고, 채권추심회사의 불법 추심사례 및 대응요령 등을 홍보

5]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

- 불법거래 징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거래 모니터링 등 AML 체계 구축을 지속 유도하고, 비대면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절차를 개선
- AML 내부통제체계 구축·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, 해외점포 AML 관리 강화*를 통해 초국경범죄 대응수준을 제고

* 은행권의 해외점포 AML 관리 강화방안 이행현황을 중점 검사하고, 제2금융권의 해외점포 AML 부문 체크리스트를 마련

6]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한 전국민 금융역량 강화

- ①아동·청소년층, ②청년층, ③중·장년층, ④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금융 수요 및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추진
- 군장병, 자립준비청년, 고령층 등 금융취약 및 소외계층에 대해 특화된 교육·상담·특강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